

‘전남 정원 네트워크’ 구축...산림관광 활성화

순천·완도·담양 동서북 핵심축 연계 투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활속 정원문화 등 15개 사업

전남도가 순천만국가정원(동부권),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서남부권), 담양 국립한국정원문화원(북부권)을 핵심축으로 지역 정원·수목원과 연계한 ‘전남 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권역 간 연계 관광 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발굴과 공동 SNS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들의 정원 생활 향유는 물론 관광객을 유도해 지역 산림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전남도는 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신규 정원 조성 및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에 전국 최대 규모인 15개 사업에 432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핵심사업으로 ▲국립완도난대수목원(1872억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67억원) ▲국립한국정원문화원(196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3개 사업은 최근 산림청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전남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역 정원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제1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 개최 ▲도내 생활밀착형 정원 ▲정원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연계 공동체정원 ▲지역 거점 지방정원 조성 ▲남양 모두누리 열린숲 ▲공공 시설 및 의뢰기관 내 스마트가든 조성 ▲정원전문

가 양성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만들고 가꾸어 온 특색있는 민간 정원·수목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에는 14개의 민간정원과 3개의 사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남 포레스트수목원과 구례 쌍산재, 보성 윤제림(성림정원)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해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지난해 10만명이 방문한 해남 포레스트수목원은 수국꽃과 여름축제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동서양의 인문학이 담긴 소정원이 조성돼 최근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tvN에서 방영 중인 ‘윤스테이(윤여정 주

연) 촬영 장소인 구례 쌍산재도 입소문을 타 인기다. 깊은 세월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택정원과 정원 해설이 정겨워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3대를 이어 숲을 경영하고 있는 보성 윤제림의 변신도 흥미롭다. 정은조 대표의 선진부터 이어진 전통 산림경영이 정원형 숲을 조성한 체류형 산림관광 6차산업 단지로 탈바꿈해 코로나19 속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생활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금까지 관 주도의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했지만 앞으로 민간주도의 정원 및 체류형 산림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월 전통주 ‘진도홍주 루비콘’ 선정



전남도가 2월을 대표할 남도 전통주로 대대료영농조합법인의 ‘진도홍주 루비콘’ (사진)을 선정했다. ‘루비콘’은 홍주 색깔을 나타내는 ‘루비’와 신비한 생명체인 ‘유니콘’을 합쳐 이름이 지어졌으며, 100% 진도쌀과 지초를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리큐르주다. 주재료인 지초는 산삼에 버금가는 신비한 약초로,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의하면 피를 맑게 하고 장염과 인체의 해독에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려한 빛깔로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진도홍주는 알코올 도수 40도의 술이지만, 맛이 부드럽고 뒤끝이 깔끔하며 지초의 효능으로 숙취와 갈증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5년 세계 3대 주류평화인 몽드셀렉션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평화회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명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만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진도홍주는 고려 초부터 빚기 시작해 임금에게 올려졌던 진상품으로, 지난 199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됐다. 김애란 대표는 “인천, 싱가포르 등 해외 면세점에 입점해 2억원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미국, 중국 등을 집중 공략해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월 명품숲 ‘고흥 나로도 편백숲’ 선정



전남도가 올해 방문해야 할 2월 명품숲으로 ‘고흥 나로도 편백숲’ (사진)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보물숲을 휴식과 힐링 여행 명소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21년 방문해야 할 명품숲’으로 도내 12개 숲을 선정하고 매월 발표하고 있다. ‘고흥 나로도 편백숲’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뒷산인 봉래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100여년 역사를 자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편백나무 숲이다.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과학의 미래를 꿈꾸는 국내 최초 우주센터지만 인근 나로도 편백숲은 아늑한 이가 적어 전라남도가 2월 명품숲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나로도 편백숲’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지역 주민들이 정성을 들여 심고 가꿨다. 현재 22ha 면적에 높이 20m가 넘는 아름드리 편백나무와 삼나무 9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편백숲에는 약 5km 구간의 탐방로가 있다. 경사가 급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기 좋다. 다도해국립공원의 확 트인 풍광을 배경으로, 어른 두 명이 끌어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 군락지 등 다양한 야생화 군락지가 산재해 있어 볼거리를 더 한다. 나로도 편백숲은 고흥 8경 중 하나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많은 사람이 찾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고흥과 여수가 다리로 연결되고, 숲길 또한 잘 조성돼 언택트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최적의 여행지로 손꼽힌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나로도 편백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숲”이라며 “팔영산 치유의 숲 등 주변 산림관광자원과 연계해 많은 사람이 찾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양수산 창업기업 발굴·지원에 16억원 투입

전남도 해양수산 투자지원센터 설립 수출 상담회 참가·온라인 유통 지원

전남도가 해양 수산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해 16억원을 투입, 해양수산분야 창업자 및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성장단계별 교육, 마케팅,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 일자리 160개 창출, 120억원의 매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비롯 도내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수산식품 온라인 유통 지원 등 14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도내 소재 기업 또는 예비창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기업별로 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변화된 대내외 환경과

비대면 소비시장의 확대를 반영해 맞춤형 가정 간편식(HMR) 개발과 국제식품인증 지원, 온라인 홍보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의 7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센터 누리집(www.jmbic.or.kr)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25일까지 우편, 방문, 전자우편(5501727@naver.com)으로 가능하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한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해양수산기업 92개를 지원해 15.2%의 연 매출 증대와 함께 605명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했으며, 예비창업지원을 통해 23개사가 신규 창업한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업박물관 ‘주말농장’ 150개 25일까지 분양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보다 많은 도민들이 농업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주말농장(사진)을 기존 110개에서 150개로 늘려 오는 25일까지 분양에 나섰다. 주말농장은 영암군 삼호읍 전남도 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에 조성됐다. 각 농장별 16.5㎡(5평) 규모로 분양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7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15일부터 내년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 방문 접수로, 평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을 방문해 분양 신청서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내달 12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논이모작 직불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난해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대상자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농지소재 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지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